

제공일자	2011. 11. 16(수)	담당자	윤성훈 동향분석실장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3775-9051)	연락처	3775-9016 총10매

제목 : 2012년 보험산업,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 고성장 지속

보험연구원(원장:김대식)은 『201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17일 오전 7시 30분부터 프라자 호텔(소공동) 그랜드 볼룸에서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발표에 나선 윤성훈 동향분석실장은 2012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지속으로 2011년보다 0.2%p 하락한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유럽 재정위기가 2012년 어느 정도 해결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완화되면서 국고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는 반면,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FY2012 보험산업은 FY2011과 마찬가지로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 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생·손보 전체적으로 1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FY2012 생명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 고성장 지속과 보장성보험의 플러스 성장 전환으로 수입보험료가 FY2011보다 2.3%p 높은 8.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보장성보험은 신상품 출시가 확대되면서 2.2%, 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노후대비 수요 증가로 10.0%, 단체보험은 퇴직연금(27.5%)의 높은 성장세로 2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FY2012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어 원수보험료가 1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종목별로는 장기손해보험이 저축성보험, 상해 및 질병보험, 재물보험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15.4% 증가하고, 연금부문은 정부의 소득공제 400만 원 한도 상향 조정 등으로 38.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차량 고급화 및 대형화에 따른 대물 및 자차보험 증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의무화 등 성장 요인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이 어렵고,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5.5%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았다. 일반손해보험은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해상, 보증, 특종보험 증가세가 FY2011에 비해 모두 둔화될 것으로 보여 6.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윤성훈 실장은 FY2012 보험산업의 경영과제로서 ① 내실 경영 및 리스크관리 강화, ② 장수리스크 관리 및 과잉의료 통제 노력, ③ 보험소비자 교육 및 사회적 책임 이행, ④ 제

도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2012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가계대출 부실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며,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수요 감소에 대비하는 한편, 과도한 공시이율 경쟁을 자제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실 경영과 리스크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둘째,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수리스크 확대 및 의료비 지출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와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제고 등 소비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 교육에 대한 참여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보험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의 편의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소비자교육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소비자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다.

넷째, 저축성보험의 신계약비 초년도 지급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모집수수료체계가 변경될 경우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고 유지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측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설계사 등의 초기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설계사의 소득이 안정되고 정착률 및 전문성이 제고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보험사고 연루자에 대한 정보접근이 차단되어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 첨부 : 『201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요약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201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요약

◆ 경제 동향과 전망

□ **(실물경제)** 2012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지속으로 2011년보다 0.2%p 하락한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동향** : 2011년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가계부채 부담과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로 내수가 부진해지면서 2010년(6.2%)보다 2.5%p 하락한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자재 및 농수산물 가격과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2010년(2.9%)보다 1.4%p 높은 4.3%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수출과 수입이 모두 둔화된 가운데 수출입단가 상승률 격차로 인해 수입 증가율(24.1%)이 수출 증가율(18.7%)을 상회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2010년보다 92억 달러 줄어든 1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전망** : 2012년 국내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 지속, 신흥국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한 수출 증가세 하락과 이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율 감소, 가계부채 확대에 의한 소비 부진 등으로 2011년보다 0.2%p 하락한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민간소비는 고용환경 악화, 가계부채 부담 지속 등으로 2011년보다 다소 낮은 2.4%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설비투자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2011년 전체보다는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나, 2011년 하반기와 유사한 수준인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및 신흥국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하락할 것이며, 내수 부진 등으로 수입 증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자재 가격 하락, 소비심리 위축, 기저효과 등으로 2011년(4.3%)대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3.4%를 기록할 전망이다.

- 고용상황은 수출 증가세 둔화, 내수 부진 지속 등의 영향으로 악화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보다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 **(금융시장)**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불안 확산으로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주식시장에도 충격이 있었으나,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임.

○ **동향** : 2011년 중앙은행은 물가불안 속에서도 세계경기 둔화 및 글로벌 금융불안 확산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2011년 6월 말부터 3.25%로 동결한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미국경기 및 국내경기 둔화 우려 등이 대두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증가로 국고채 금리 하락세가 지속됨.

- 2011년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로 연초 4.1%까지 상승하였으나, 2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연간 3.6%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연초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나, 8월 이후 금융불안으로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이탈함에 따라 크게 상승하여 연간 1,100원 내외를 유지할 전망이다.

○ **전망** :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는 한편,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다소 낮아질 것이나, 외국인의 채권매수 지속, 국내경기 부진으로 국고채 금리는 2011년보다 0.1%p 상승한 평균 3.7%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원/달러 환율도 유럽 재정위기 완화 예상으로 2011년보다 평균 20원 하락한 1,08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금융 불확실성이 높아 변동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보험 산업 지표 전망

- **(개관)** FY2012 보험산업은 저금리 환경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으로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시장금리 상승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험산업은 장기간 저금리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이차역마진 발생이 우려됨.
 - 개정된 「근퇴법」 시행에 따른 중간정산 요건 강화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설정 허용으로 퇴직연금시장의 고성장세가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 FY2012 생명보험산업은 개인보험 성장세 회복과 함께 단체보험이 고성장하면서 FY2011 수입보험료 증가율(6.2%)보다 2.3%p 높은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FY2012 **보장성보험**(종신·CI·상해·암·질병 등)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과 암보험을 중심으로 신상품 출시가 확대되면서 플러스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되나 증가율은 2.2%에 그칠 전망이다.
 -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사망 전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생존 급부를 지급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신상품이 등장하면서 종신보험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금융당국이 암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암보험 관련 신상품 출시로 비종신보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FY2012 **저축성보험**(생사혼합·생존·변액유니버설·변액연금)은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노후소득 관심 증가로 변액저축성보험 성장률은 높아지나, 일반저축성보험 성장률이 소폭 둔화되면서 FY2011 수준인 10.0% 증가율이 전망됨.
 -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속도도 늦춰질 것으로 보여 일반저축성보험의 금리 경쟁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세제적격 연금보험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으로 세제적격 개인연금 수입보

보험료 증가가 예상되나, 생명보험 일반생존보험 중 세제적격 개인연금 비중이 20% 미만으로 낮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변액저축성보험은 금융불안이 완화됨에 따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변액연금의 고성장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o FY2012 **단체보험**(일반단체보험·퇴직보험·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감소 효과가 소진되면서 2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은 「근퇴법」 개정안 시행 등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FY2011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감소가 단체보험의 고성장을 상쇄하였으나, FY2012 이후에는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면서 단체보험 증가율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손해보험)** FY201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1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o FY2012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유입에 따른 저축성보험, 상해·질병보험, 재물보험의 견조한 성장으로 1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급증세는 둔화될 것이나 저금리 기조 유지로 수요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낮아 25.3% 증가가 전망됨.

-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안정기에 접어들고 보험료 갱신 효과로 완만한 증가세(13.6%)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재물보험은 지속적인 수요 확대로 19.4% 성장이 전망됨.

- o FY201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보험) 원수보험료는 정부의 연금 관련 지원 등에 힘입어 38.7% 증가로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개인연금의 경우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수요 확대와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효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0.4% 증가가 전망됨.

- 퇴직연금의 경우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¹⁾ 등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37.3% 증가가 전망됨.

1) 2011년 6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며, 신설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됨.

- FY2012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가격경쟁 심화가 예상되어 5.5%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온라인 판매 채널 비중 확대에 의한 가격경쟁 심화 등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차량고급화·대형화로 인한 대물·자차 보험 증가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보임.
- FY2012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 보증, 특종보험 성장세가 FY2011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화재보험의 경우 「화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아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1.5% 감소가 전망됨.
 - 해상보험의 경우 물동량 증가세 둔화로 적하보험 저성장이 전망되고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선박보험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2.1% 증가가 전망됨.
 - 보증보험의 경우 빠른 건설경기 회복세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행보증보험의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통신요금 신용보험 성장세로 5.9% 증가가 전망됨.
 - 특종보험의 경우 단체상해보험 중심의 상해보험 증가세와 기저효과로 인한 기술보험 소폭 회복세로 8.2% 증가가 전망됨.

<붙임 2>

2012년 보험산업 및 경제 주요 전망치

1. 보험산업 주요 지표

항 목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수입보험료(억 원,성장률)				
- 생명보험	769,568 (4.6%)	830,074 (7.9%)	881,289 (6.2%)	956,632 (8.5%)
- 손해보험	438,323 (16.9%)	522,444 (19.2%)	606,320 (16.1%)	697,933 (15.1%)
- 전 체	1,207,891 (8.8%)	1,352,518 (12.0%)	1,487,609 (10.0%)	1,654,565 (11.2%)
보험침투도(%)*				
- 생명보험	7.0	7.0	6.9	7.0
- 손해보험	4.0	4.4	4.7	5.1
- 전 체	11.0	11.3	11.6	12.0
1인당보험료(천 원)				
- 생명보험	1,579	1,698	1,799	1,949
- 손해보험	899	1,069	1,238	1,422
- 전 체	2,478	2,767	3,037	3,371
생손보 구성비(%)				
- 생명보험	63.7	61.4	59.2	57.8
- 손해보험	36.3	38.6	40.8	42.2

주 1) 보험침투도는 (총수입보험료/경상GDP)×100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치

(단위 : 억 원, %)

보험종목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 명 보 험	보장성	299,386	-1.8	297,126	-0.8	296,917	-0.1	303,524	2.2
	저축성	397,165	6.6	460,277	15.9	505,875	9.9	556,438	10.0
	개인소계	696,551	2.8	757,403	8.7	802,792	6.0	859,962	7.1
	단 체	73,017	25.7	72,671	-0.5	78,497	8.0	96,670	23.2
	합 계	769,568	4.6	830,074	7.9	881,289	6.2	956,632	8.5
손 해 보 험	화 재	2,763	-2.5	2,660	-3.7	2,632	-1.1	2,592	-1.5
	해 상	8,049	-5.4	7,721	-4.1	8,182	6.0	8,356	2.1
	자동차	112,224	2.6	124,133	10.6	134,085	8.0	141,467	5.5
	보 증	12,287	6.6	13,074	6.4	14,549	11.3	15,410	5.9
	특 종	35,371	14.5	39,446	11.5	44,567	13.0	48,202	8.2
	장 기	232,988	23.4	281,813	21.0	326,702	15.9	377,070	15.4
	개 인	17,841	38.8	24,697	38.4	34,161	38.3	47,951	40.4
	퇴직연금	8,119	144.4	23,616	190.9	41,441	75.5	56,885	37.3
	합 계	438,323	16.9	522,444	19.2	606,320	16.1	697,933	15.1

주 : 1)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3.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E)	2012(F)
실질GDP	5.1	2.3	0.3	6.2	3.7	3.5
- 민간소비	5.1	2.0	1.2	4.1	2.6	2.4
- 설비투자	9.3	-1.0	-9.8	25.0	5.6	3.4
- 건설투자	1.4	-2.8	3.4	-1.4	-6.5	1.5
- 총수출	12.6	6.6	-1.2	14.5	11.2	10.1
- 총수입	11.7	4.4	-8.0	16.9	11.6	10.3
고용률	59.8	59.5	58.6	58.7	59.1	58.7
실업률	3.2	3.2	3.6	3.7	3.4	3.6
경상수지	217.7	31.9	327.9	282.1	190.4	117.5
상품수지	371.3	51.7	378.7	419.0	269.3	230.2
- 수출	3,895.6	4,346.5	3,581.9	4,642.8	5,511.0	6,106.2
(증가율)	(15.8)	(11.6)	(-17.6)	(29.6)	(18.7)	(10.8)
- 수입	3,524.4	4,294.8	3,203.2	4,223.8	5,241.7	5,876.0
(증가율)	(15.5)	(21.9)	(-25.4)	(31.9)	(24.1)	(12.1)
소비자물가	2.5	4.6	2.8	2.9	4.3	3.4
국채(3년) 수익률	5.2	5.3	4.0	3.7	3.6	3.7
우량회사채(3년) 수익률	5.7	7.0	5.8	4.7	4.4	4.6
원/달러 환율	929	1,101	1,276	1,156	1,100	1,080